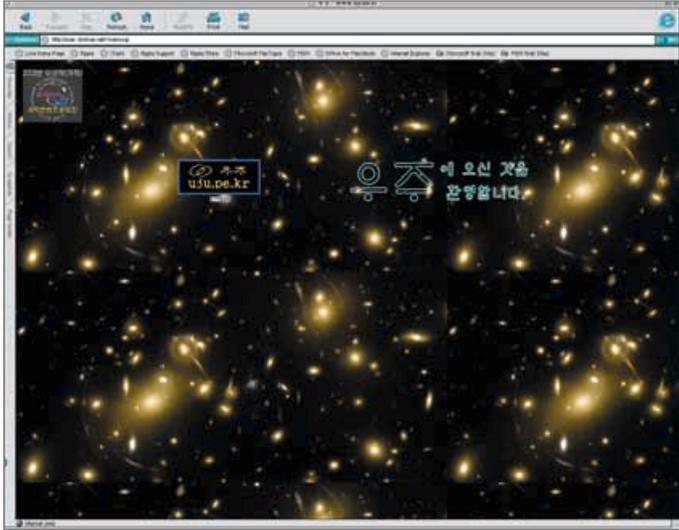


우주인 프로젝트에 도전. 우주인 되기



글_ 김인순 전자신문 기자 insoon@etnews.co.kr

부터 달을 보고 태양계의 다른 별들을 구경한 후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프록시마'라는 별을 볼 수 있다.

사이트에 따르면 밤하늘에 보이는 많은 별이 우주 어디에나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우주에는 별이 없는 곳이 훨씬 많으며 별들은 골고루 있지도 않다. 우주의 어느 곳에 별이 약 1천억 개가 모여 있고 그 주변에는 거의 별이 없으며, 매우 멀리 가면 다시 또 별들이 약 1천억 개가 모인 것이 바로 은하라는 것이다.

그럼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이 사이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준다. 우리 우주의 끝은 있다. 다른 우주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 우주는 끝이 있다고 한다. 우주에 끝이 있다는 사실은 빛의 속도와 허블의 법칙에 근거한다. 이 세상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체는 없기 때문이다. 허블의 법칙이란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법칙이다. 즉,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른 속도를 갖는다. 이 두 가지 법칙을 결합해 말하면 가장 멀리 있는 은하의 속도는 가장 빠른 속도인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은하이다. 다시 말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으므로 이 은하보다 먼 곳에는 어떤 물체도 없다. 이곳(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가 있는 곳)이 바로 우주의 끝이라는 게 사이트의 설명이다.

우주의 나이도 알 수 있다. 우주의 나이는 우주의 크기인 150억 광년이다. 우주의 끝에는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은하가 있다고 한다. 우주가 과거에는 크기가 거의 0인 점이였으며, 우주는 150억 년까지 팽창했다. 이 때까지 걸린 시간이 바로 150억 년이며 이것이 결국 우주의 나이라는 것이다.

그럼 한국인 우주인이 갈 미래의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우주의 미래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우리의 우주인이 직접 가서 갖가지 탐험과 실험을 통해 밝혀줄 것이다. 한국인 우주인이 손을 번쩍 들어 전세계에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줄 날을 기대해 본다. **IT**

한 국인 우주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올해 5월쯤 지원자 가운데 최종 2명을 우주비행사 후보로 확정하고 한국인 우주인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계획대로라면 2007년 10월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한다. 두 명의 후보는 러시아 가가린 우주센터에서 2년간 훈련을 받은 뒤 이중 1명이 오는 2007년 10월 러시아 유인우주선 '소유즈'에 승선, 국제우주정거장(ISS) 러시아 모듈에서 10일간 머물며 과학실험 등 우주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누가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이 될 것인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이 제시한 우주비행사 선발기준에 따르면 신체적으로는 평범하지만, 자질과 능력 등에서는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친다.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우주인 프로젝트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비록 우주인이 되려는 의지가 없더라도 온 국민의 거대 과학이벤트가 될 우주인 프로젝트에 우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참여해 보는 것도 새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우주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줄 사이트는 '우주' (<http://user.chollian.net/~kemjwg/>)다. 2002년도 사이언스올 과학콘텐츠 공모전 가장 수상작이기도 한 이 사이트는 마치 우주선을 타고 직접 우주로 날아가는 듯한 재미를 준다. 우주여행 메뉴를 누르면 지상 발사대에서 한반도 상공을 지나 지구 밖으로 나간다. 여기서



글쓰는 송신대 정보통신공학과 졸업 후 한국전파신문을 거쳐 2001년 이후 전자신문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